

미국 대학의 “한 책” 독서운동에 관한 연구

“One Book” Reading Campaigns in Universities in the U. S. A.

윤 정 옥(Cheong-Ok Yoon)*

〈 목 차 〉

I. 머리말	1. 지역사회의 “한 책” 독서운동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대학 캠퍼스 내의 “한 책” 독서운동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III. 대학의 “한 책” 독서운동의 특성
II. 대학의 “한 책” 독서운동의 유형별 분석	IV. 맺음말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대학들이 수행하고 있는 “한 책” 독서운동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이 대학 자체와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미국의 많은 대학들은 지역사회 “한 책” 독서운동에 파트너로서 혹은 주관기관으로서 참여하기도 하고, 또는 캠퍼스 내에서 전형적 “한 책” 운동 혹은 “공동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은 “한 책” 독서운동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도서관 컬렉션, 전문적 인력자원 및 캠퍼스 시설 등의 다양한 자원의 제공자로서, 또한 그 자체가 대학의 “아웃리치” 활동으로서, 그리고 대학도서관 및 다양한 학과, 연구소, 부서, 부속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문영역의 독서진흥활동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또한 대학 안팎에 “문학 독서(literary reading)”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다 높이고,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 독서에 따른 학업효과의 증진 등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키워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지역사회 독서운동, 미국 대학의 독서환경, “공동독서 프로그램”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One Book, One Community” reading promotion campaigns in which universities are involved in the U. S. A. Many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various communities participate in “One Book” campaigns in communities as leaders or partners, and promote reading for students on campus through either “One Book, One Campus” or “common reading programs.” Universities can contribute a lot to “One Book” campaigns in communities by providing library collection, human resources, and facilities, and especially coordinating programs and events which require subject specialties. Also, they can promote the significance of reading literary classics. “Common reading programs” help freshmen easily adjust to campus life and build the sense of belonging to the “academic community” by reading the same book and talking about it with other members of universities.

Keywords: “One Book, One Community” Reading Promotion Campaign, Community-wide Reading Campaigns, Reading Environments of Universities in the U. S. A., “Common Reading Programs”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jade@cju.ac.kr)

• 접수일: 2008년 5월 12일 • 최종심사일: 2008년 5월 26일 • 최종심사일: 2008년 6월 21일

I. 머리말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이하 “한 책” 독서운동이라 부름)은 1998년 미국 워싱턴 주의 시애틀 시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지역사회 대중 독서운동으로서 지난 십년 동안 미국 전역 및 영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한 책” 독서운동은 많은 지역사회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함으로써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게 하고, 공동체 의식을 북돋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세기 공공도서관이 주창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이자 “혁신”으로서 크게 평가받게 되었다. 더욱이 미국의 예술지원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이하 NEA라 부름)이 2006년부터 전국적인 규모로 추진하는 문학 독서운동인 “The Big Read”가 “한 책” 독서운동의 모형을 그대로 채택함으로써, 점점 더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한 책” 독서운동이 지향하는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공동체(community)”란 거의 대부분 크고 작은 지리적 개념으로서의 지역사회이고, 이를 주도하는 것은 대부분 그 지역의 대표 격인 공공도서관들이다. 즉, 시카고 시, 해밀턴 카운티, 캘리포니아 주 혹은 캐나다 등과 같이 다양한 규모의 지역사회에서 공공도서관들이 주도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의 개념이 반드시 이러한 지리적 혹은 정치적 단위의 지역사회에만 국한되지는 않고, “한 책”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공동의 문화적 체험을 갖고자 하는 어떤 집단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학교, 한 기관, 한 컨퍼런스와 같이 공동의 목표를 갖는 어떤 형태의 공동체에서도 “한 책” 독서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¹⁾

미국의회도서관 도서센터(The Center for the Book, Library of Congress)가 유지하는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의 웹사이트에 2008년 4월 현재 등록된 “한 책” 독서운동들을 살펴보면,²⁾ 그 가운데 종종 대학이 지역의 “한 책” 독서운동의 파트너로서 혹은 주관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많은 대학들이 개별적으로 대학 내 “한 책” 독서운동을 수행하거나 “공동독서 프로그램(common reading program)”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책” 형태의 독서운동을 진행하는 경우도 볼 때, 대학이 수행하는 “한 책” 독서운동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성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대학은 학생, 교수, 교직원들이 중심 구성원이 되는 “학술 공동체(academic community)”이다. 그러나 넓게는 졸업생, 학부모, 그리고 크게는 그 대학이 속한 지역의 구성원까지를 포함하도

1) 윤정옥,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특성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2005), p.43.

2) Library of Congress, The Center for the Book,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 2008, <<http://www.loc.gov/loc/cfbook/onebook.html>> [Access 2008. 4. 20].

록 그 공동체의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학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개입하는 “한 책” 독서운동은 대학 자체가 개별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 책” 독서운동은 대학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독서와 토론을 독려하고 자극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대학의 가장 크고도 중요한 구성원인 학생들은 NEA가 2004년 발간한 미국 성인의 독서실태 보고서인 “위기의 독서”³⁾에서 모든 연령층 가운데 지난 20년 사이에 가장 급격히 독서율이 하락하였다고 지적한 집단에 속한다. 이것은 전체적인 독서(book reading), 그리고 문학 독서(literary reading)의 비율 모두 하락하고 있는 추세와 동반하여 나타난 결과였는데, 말하자면 학생들은 대부분 한 마디로 책을 가장 안 읽는 연령층(18-24세)에 속한 집단이다. “한 책” 독서운동은 대학 캠퍼스 내에서 이들로 하여금 책을 읽고 토론하게 함으로써 독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대학이라는 공동체에 통합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다.

한편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 지역에 소재한 대학이 “한 책” 독서운동에 참여하거나 주도함으로써 독서, 토론, 행사 등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풍요하고도 다양한 전문적 자원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대학이 “한 책” 독서운동을 추진하는 동안 지역사회의 개인, 단체, 기관들과 협력하게 되면서, 대학 자체가 지역사회로 나가 파고 들어가는 “아웃리치(out-reach)”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또한 대학으로 다가오는 기회가 마련될 수도 있다. 이것은 “한 책” 독서운동을 수행하면서 도서관들이 지역사회를 향한 아웃리치를 지향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⁴⁾

이 같은 전제 하에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대학들이 수행하고 있는 “한 책” 독서운동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이 대학 자체와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학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참여하는 “한 책” 독서운동을 통해 어떻게 교내에서 대학생의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지, 또한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의회도서관의 도서센터와 예술지원기금(NEA) 웹사이트에 수록된 자료를 조사하여 2008년 4월 현재 각 주 혹은 도시의 “한 책” 독서운동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3)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Reading at Risk : A Survey of Literary Reading in America*, 2004, (Research Division Report: 46) <<http://www.arts.gov/pub/ReadingAtRisk.pdf>>.

4) 윤정옥, 전계논문, p.28.

한 지역사회와 대학이 개입한 “한 책” 독서운동의 사례들을 분석하도록 한다. 미국의회도서관 도서관센터의 웹사이트는 미국의 각 주(州)와 지역에서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되고 있는 “한 책” 독서운동의 리스트 및 “한 책”으로 선정된 책의 작가별 리스트⁵⁾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 내 “한 책” 독서운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문헌조사와 더불어 “한 책” 독서운동을 직접 주관하거나 파트너로 참여한 대학의 웹사이트에 수록된 자료를 분석하여, “한 책” 독서운동의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에 대하여 서술하고, 주요한 특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II. 대학의 “한 책” 독서운동의 유형별 분석

이 연구에서 살펴본 미국의 대학들이 “한 책” 독서운동을 수행하는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학이 지역사회의 “한 책” 독서운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 대학이 대학 캠퍼스 내에서 “한 책” 독서운동을 진행하는 경우이다.

첫째, 대학이 지역사회의 “한 책” 독서운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지역사회가 주관하는 “한 책” 독서운동에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이 이를 주관하는 경우이다.

대학이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에서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 시(市) 혹은 문학단체 등이 주체 기관이 있고, 대학은 이들과 협력하여 행사나 프로그램의 일부를 맡아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텍사스 주의 덴튼 시에서 덴튼 공공도서관과 함께 덴튼 교육구(Denton School District), 노스텍사스 대학(University of North Texas), 텍사스 여자대학(Texas Woman's University) 등 지역에 소재한 대학들이 “Denton Reads”를 진행하는 것이 있다. 또한 조지아 주 사바나 시의 암스트롱 아틀란틱 주립대학과 라이브 오크 공공도서관이 함께 “Savannah Reads”를 진행하며,⁶⁾ 미시건 주의 이스트 랜싱 시가 미시건 주립대학과 함께 “One Book, One Community”를 2002년부터 진행하는 사례 등도 들 수 있다.

대학들이 지역사회의 “한 책” 독서운동을 이끌고 있는 사례로는 최근 “The Big Read”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두드러진다. 그러한 예로는 2008년 상반기 “The Big Read”에 참여하는 텍사스 주의 웨더포드에서는 웨더포드 대학(Weatherford College)이 주관하여 “My Antonia”를 읽고, 미시시피 주의 걸프포트는 걸프 코스트 커뮤니티 대학, 제퍼슨-데이비스 캠퍼스(Jefferson-

5) Library of Congress, The Center for the Book,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 by Author*, 2008, <<http://www.loc.gov/loc/cfbook/onebookbyauthor.html>> [Access 2008. 5. 8].

6) Nordquist, Richard, *Armstrong Atlantic State University. Savannah Reads Hurston*, 2008, <<http://www.faculty.armstrong.edu/read.htm>> [Access 2008. 4. 24].

Davis Campus, Mississippi, Gulf Coast Community College)가 주관하여 “To Kill a Mockingbird”를 읽으며, 미네소타 주 세인트 클라우드주는 세인트 클라우드 주립대학(St. Clouds State University)이 주관하여 “Bless Me Ultima”를 읽는 것 등을 들 수 있다.⁷⁾

둘째, 대학이 대학 캠퍼스 내에서 “한 책” 독서운동을 진행하는 경우는 종종 “One Book, One Campus”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를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펜실베이니아 주 베들레햄 시의 리하이 대학(Lehigh University)의 “On the Same Page, Lehigh”처럼 대학 내에서 대학도서관이 주관하는 전형적인 “한 책” 독서운동으로 진행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윌밍턴 시에 소재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University of North Carolina, Wilmington)의 “Synergy, the UNCW Common Reading Experience”처럼 주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공동독서 프로그램”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음에서는 각 형태 별로 대표적인 몇몇 대학의 사례들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1. 지역사회의 “한 책” 독서운동

가. 파트너로서

대학이 지역사회의 “한 책” 독서운동에 파트너가 된다는 의미는 단순히 행사나 프로그램을 돕고 참여하는 것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책” 독서운동은 독서행위의 범위를 책을 읽는 것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매체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보거나 듣거나 느끼게 함으로써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⁸⁾ 그런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하며 홍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극단, 현악 앙상블, 재즈밴드, 예술전시장, 박물관, 역사학회, 전문직 단체, 각급 학교, 대학, 무용단, 문학단체, 문예지, 종교기관 등 매우 다양한 지역사회의 기관, 시설, 단체들이 “한 책” 독서운동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⁹⁾ 그 가운데 대학은 교수, 연구원 등 주제전문가, 도서관 소장 자료, 시설 등의 전문자원을 “한 책” 독서운동을 위해 활용하고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른 어느 기관들보다도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고, 그러면서 단순히 참여하는 것 이상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표 1>은 2008년 4월 현재 대학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한 책” 독서운동의 사례들을 보여주는데, 다음에서는 임의로 선정한 몇 개 대학의 사례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7)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The Big Read. *Participating Communities Search*, 2008, <<http://www.neabigread.org/communities.php>> [Access 2008. 4. 29].

8) 윤정옥, 전개논문.

9)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One Book, One Community: Planning Your Community-wide Read*, 2003, <www.ala.org/ala/ppo/onebookguide.pdf> [Access 2007. 1. 18].

〈표 1〉 대학이 파트너인 “한 책” 독서운동

(2008년 4월 현재)

“한 책” 명칭	주관 기관	지역	시작연도
“Iola Reads”	Iola Public Library, Unified School District #247, Allen County Community College Library, The Bowlus Fine Arts Center	Iola, 캔사스 주	2006-
“One Book, One Community”	Bridgewater Public Library, Bridgewater State College, Bridgewater-Rayham Regional High School	Bridgewater, 매사추세츠 주	2005-
“One-Book Holyoke”	Holyoke Public Schools, Holyoke Community College, Holyoke Public Library	Holyoke, 매사추세츠 주	2008-
“One Book, One Community”	City of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East Lansing, 미시건 주	2002-
“One Book, One Community”	Peter White Public Library, North Michigan University	Marquette, 미시건 주	2002-
“One Book, One County”	Montcalm Community College, Flat River Community Library	Montcalm County, 미시건 주	2005-
“Roswell Reads”	Roswell Public Library, Eastern New Mexico University-Roswell, New Mexico Military Institute	Roswell, 뉴멕시코 주	2004-
“One Book, One Community”	Ramapo Catskill Library System, Sullivan County Community College	Sullivan County, 뉴욕 주	2002-
“Summer Reading Program”	Appalachian State University, Watauga Public Library	Watauga County, 노스캐롤라이나 주	2001-
“One-Book, One-Community”	Rodman Public Library, Mount Union College, Greater Alliance Foundation	Alliance, 오하이오 주	2004-
“One Book, One Community”	The Community College, Universities, High Schools, and Public Library of System of Cambria County	Cambria County, 펜실베이니아 주	2004-
“A Tale for One City”	Chattanooga Hamilton County Bicentennial Library, University of Tennessee, Chattanooga	Chattanooga, 테네시 주	2004-

(1) 암스트롱 아틀란틱 주립대학의 “Savannah Reads”

조지아 주 사바나 시의 암스트롱 아틀란틱 주립대학이 라이브 오크 공공도서관(Live Oak Public Libraries)과 함께 주관하는 “Savannah Reads”는 2004년 대학 내의 “한 책” 운동인 “Campus Read”로 시작되었고, 2005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첫 해인 2004년에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사바나 지역 출신 작가인 Flannery O'Connor의 소설집인 “A Good Man is Hard to Find”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였다.¹⁰⁾ 행사 기간 동안 대학의 레인도서관에서 도서관이 소장한 희귀본과 실물자료의 특별 컬렉션 전시회를 열었고, 행사 첫날 “교과과목 간 토론(Across the Curriculum Discussion)”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학과의 교수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O'Connor의 작품에 접근하도록 토론을 이끌었다. 그녀의 작품

10) Nordquist, Richard. *Armstrong Atlantic State University Campus Read, April 5-9, 2004*, 2004. 5. 2., <<http://www.faculty.armstrong.edu/read04.htm>> [Access 2008. 4. 22].

에 근거한 영화 상영(“Displaced Person”)과 작가를 주제로 한 “원 우먼 쇼우” 공연, 사바나 도심에 위치한 작가의 어린 시절 생가 방문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되었고, 학생들이 진행하는 학생과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독서 토론회가 열렸다.

“Campus Read”는 지역사회에도 개방되어 시민의 참여도 독려하였지만,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교수들이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Campus Reads”는 2005년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한 책” 운동으로 확장되면서, 그 이름을 “Savannah Reads”로 바꾸었다. 그러면서, 사바나 지역의 학교들도 참여하여 대학의 안팎에서 행사를 함께 치르게 되었다. 이 해에는 “Savannah Reads Gaines”로서 “A Lesson Before Dying”(Ernest J. Gaines)을 함께 읽었는데,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는 대학뿐만이 아니라, 공공도서관 및 이 지역의 존슨 고등학교 독서클럽의 월례 모임에서도 함께 이루어졌다.

“Savannah Reads”에서 대학 내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그리 다양하지는 않았으나, 선정된 “한 책”을 중심으로 비교적 학술적 성격을 가진 행사를 대학 내에서 치르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에는 “Savannah Reads Hurston”으로서 흑인 작가인 Zora Neale Hurston의 “Their Eyes Were Watching God”을 읽으면서 대학도서관에서 작가 관련 전시회를 진행하는 한편, 이 작가를 연구하는 저명한 교수의 개막 강연이 있었고, 역사학과 교수들이 작가, 작품 배경 당시의 문화적 및 사회적 상황, 그리고 흑백분리 등과 같은 주제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교수와 대학극단, 대학 합창단이 이 작품을 주제로 한 공연을 펼치고,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작가와 작품에 관한 소논문을 낭독하는 학생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를 위해 대학 내에서 누가 후원(sponsor) 하는가도 흥미로운 면모를 보인다. 예를 들어, 2006년 행사는 대학도서관만이 아니라 교내 노조위원회, 예술과학대학, 보건전문직 대학, 교무처, 어문철학과(LLP. Language, Literature & Philosophy), AASU 재단, AASU Masquers(대학극단), 기념병원, Savannah Morning News(대학신문) 및 “The Gilmer Lecture Series”와 같이 다양한 대학 구성원들이 후원하고 있다.

한편 “Savannah Reads”는 2007년부터 NEA의 지원을 받아 “The Big Read”로 진행되었는데, 그러면서 2008년에는 그 이름을 아예 “The Big Read Savannah 2008”로 바꾸었다. 이전의 “Savannah Reads”를 매년 4월에 한 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던 것에 반하여, 2008년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4월 한 달 내내 행사를 진행하며 Ray Bradbury의 “Fahrenheit 451”을 읽었다. 11) 그러면서 지역의 라이브 오크 공공도서관이 주관기관이 되며, 암스트롱 대학 등은 지역사회의 파트너 기관으로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12)

11) Live Oak Public Libraries. *The Big Read Savannah 2008*. 2008.
 <<http://bigreadsavannah.weebly.com/>> [Access 2008. 4. 29].

12) Live Oak Public Libraries. *The Big Read Savannah 2008: Partners*, 2008.
 <<http://bigreadsavannah.weebly.com/partners.html>> [Access 2008. 4. 29].

“Savannah Reads”는 대학이 교내에서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에도 개방하였던 “한 책” 독서운동¹³⁾이 점차 확대되고, 마침내 그 주도적 역할도 공공도서관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웨스턴 켄터키 대학의 “One Campus-One Community-One Book”

켄터키 주 보울링 그린의 웨스턴 켄터키 대학(Western Kentucky University, WKU) 도서관은 보울링 그린 공공도서관(Bowling Green Public Library)과 반스앤노블(Barnes & Noble) 서점과 더불어 매년 “One Campus-One Community-One Book”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4월 열리는 “Southern Kentucky Book Fest”라는 켄터키 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문학축제의 사전 행사(Pre-Fest Events) 가운데 하나로서 어린이를 위한 “On the Same Page”, 그리고 십대를 위한 “IRead for Teens”와 함께 진행된다.¹⁴⁾

“One Campus-One Community-One Book”은 “WKU 캠퍼스 전체와 보울링 그린 지역사회를 한 책을 중심으로 한데 모이게 함으로써 읽기와 토론을 장려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¹⁵⁾ 2008년으로서 다섯 번째를 맞는 “One Campus-One Community-One Book”은 “Days of the Endless Corvette”(Man Martin)를 읽기로 하였는데, 행사의 개막은 2008년 1월 24일에 선포되었지만, 실제 책을 선정하여 공지한 것은 2007년 10월이었다. WKU 및 보울링 그린 기술대학, 보울링 그린 공공도서관 등에서 무료로 책을 나누어 주었으며, 2월 28일과 29일에 작가와의 만남을 갖기로 하였다.

“One Campus-One Community-One Book”을 위해서는 독서와 토론, 작가와의 만남 이외에는 별로 다양한 행사를 치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은 작가와의 만남 후에 작품의 소재와 관련이 있으며, 지역 인근에 소재한 코벳 자동차 박물관(National Corvette Museum)을 함께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그 밖에 특별한 행사는 열지 않는다. 책을 읽고 토론하기 위한 열 가지의 질문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시되고,¹⁶⁾ WKU 도서관, 보울링 그린 공공도서관 및 보울링 그린 기술대학에서 몇 차례 토론회가 열리는 정도이다.

“One Campus-One Community-One Book”은 “한 책” 독서운동의 기본적 요소인 독서와 토론에 치중하고 있는 한편, 책과 관련된 그 밖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13) Rodney, Mae L. “Building Community Partnerships: The ‘One Book, One Community’ Experience.” *C & RL News* Vol.65, No.3(2004), pp.130-132.

14) Western Kentucky University Libraries. *About Us*, 2008. 4.,
〈<http://www.sokybookfest.org/Bookfest08/about.html>〉 [Access 2008. 4. 24].

15) One Book One Campus One Community. *About the One Book Project*, 2007. 10.,
〈http://www.bgonebook.org/ococob_about.htm〉 [Access 2008. 4. 22].

16) One Book One Campus One Community. *About the One Book Project*, 2008. 2.,
〈<http://www.bgonebook.org/discussionguides.htm>〉 [Access 2008. 4. 22].

“Southern Kentucky Book Fest” 자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된다고도 할 수 있다.

나. 주관기관으로서

대학이 지역사회의 “한 책” 독서운동을 주관하는 경우는 최근 NEA가 추진하는 “The Big Read”에 참여하는 데서 종종 볼 수 있다. NEA가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및 Arts Midwest와 파트너가 되어 지원하는 “The Big Read”는 “미국 문화의 중심에 독서를 회복(to restore reading to the center of American culture)”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미국 전역에 “즐거움과 자아계발(pleasure and enlightenment)”을 위한 독서를 장려하고자 시도하는 전국적 규모의 지역사회 독서운동이다.

“The Big Read”는 앞서 언급한 NEA의 보고서 “위기의 독서”¹⁷⁾에 나타난 1982년부터 2002년 사이 미국 성인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문학 독서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에서는 그 하락률이 더 급격하다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시작된 문학 독서진흥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 책” 독서운동의 모형을 채택하여 지역사회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도록 하며, 지역 내 행사와 활동에 필요한 자료, 도서 및 토론 지침, 작가와 작품에 대한 정보 등의 광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The Big Read”는 지금까지의 “한 책” 독서운동에서 가장 선호된 작품인 하퍼 리의 “앵무새 죽이기”¹⁸⁾를 비롯하여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 헤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 등 미국문학의 고전 반열에 든 작품 15권과 함께 유일한 외국 작가의 작품으로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 등 16권의 책들 가운데 하나를 선정하여 읽도록 하고 있다.¹⁹⁾

“The Big Read”에 참여하는 각 지역사회는 한 달 가량 이 독서운동을 진행하면서 패널 토론, 저자 낭독회 등 책에 관련된 주요 행사를 펼치며, 영화상영, 연극 공연, 극화 낭독과 같이 책을 “시발점(a point of departure)”으로 사용한 행사와 더불어 지역의 다양한 장소에서 광범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를 연다. “The Big Read”는 2006년에 10개의 지역사회에서 4권의 책 가운데 하나를 선정하여 읽는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고, 2007년 전국적 사업으로 확대하여 점점 참여하는 지역사회가 늘어나면서, 2009년까지는 400여개 지역사회가 참여하게 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²⁰⁾ 앞에서 언급한 미국의회도서관 도서센터의 웹사이트를 보면, 이전에 “한 책” 독서운동을 수행하며 독자적으로 책을 선정하여 읽었던 많은 지역사회들이 근래에는 “The Big Read”에

17)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Reading at Risk: A Survey of Literary Reading in American: Executive Summary* 2004, <<http://www.nea.gov/pub/RaRExec.pdf>> [Access 2008. 4. 22].

18) 2001년 시카고에서 처음 선정된 이래, 2008년 1월 현재까지 미국 내 71개 지역사회에서 “한 책”으로 선정되어 읽혔다.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천적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1호(2008), p.64.

19)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The Big Read, Featured Books*, 2008, <<http://neabigread.org/books.php>> [Access 2008. 5. 1].

20)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The Big Read, About the Big Read*, 2008, <<http://neabigread.org/about.php>> [Access 2008. 4. 29].

합류하여 추천된 문학작품을 읽는 사례를 볼 수 있다.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The Big Read”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27개 지역사회에서는 대부분 공공도서관이나 지역의 문화·예술·독서 관련 기관, 단체들이 이 독서운동을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대학 전체 혹은 대학의 부속기관이나 학과 등이 이를 주관하는 지역사회들도 있는데,²¹⁾ 다음에서는 이들 가운데 임의로 선정한 몇 개 대학의 사례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표 2> “The Big Read” 참여 대학

(2008년 상반기)

주관 대학	지역	읽는 책
Weatherford College	Weatherford, 텍사스 주	My Antonia
Jefferson-Davis Campus, Mississippi, Gulf Coast Community College	Gulfport, 미시시피 주	To Kill a Mockingbird
St.Cloud State University	St.Cloud, 미네소타 주	Bless Me, Ultima
Univ. of Wisconsin-Eau Claire	Eau Claire, 위스콘신 주	The Maltese Falcon
Univ.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rbana & Champaign, 일리노이 주	The Death of Ivan Ilyich
Owensboro Community and Technical College	Owensboro, 켄터키 주	The Joy Luck Club
Univ. of Massachusetts, Boston	Boston, 매사추세츠 주	To Kill a Mockingbird
SUNY, Cortland	Cortland, 뉴욕 주	Fahrenheit 451
College of Southern Maryland	La Plata, 메릴랜드 주	A Lesson Before Dying
Hampton University	Hampton, 버지니아 주	A Lesson Before Dying
UNC Chapel Hill, The Sonja Haynes Stone Center for Black Culture & History	Chapel Hill, 노스캐롤라이나 주	Their Eyes Were Watching God
Benedict College	Columbi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A Lesson Before Dying
Auburn University	Marion, 앨라배마 주	To Kill a Mockingbird
Mississippi Valley State University, J.H.White Library & College of Education	Itta Bena, 미시시피 주	A Lesson Before Dying
Univ. of Texas at Brownsville & Texas Southmost College	Brownsville, 텍사스 주	To Kill a Mockingbird

(1) 일리노이 주립대학-어바나 샴페인(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일리노이 주의 어바나 샴페인에 소재한 일리노이 주립대학은 2008년 상반기 “The Big Read” 기금지원을 받아 “Champaign-Urbana Big Read 2008”을 진행하였다. 이 대학의 러시아, 동유럽 및 유라시아 센터(Russian, East European and Eurasian Center)는 슬라브 어문학과(Slavic languages and literatures), 어문학, 문화대학(School of Literatures, Cultures and Linguistics) 및 번역연구센터(Center for Translation Studies)와 더불어 “The Big Read” 활동을 주관하였

21)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The Big Read, *Participating Communities Search*, 2008, <http://www.neabigread.org/communities.php> [Access 2008. 4. 29].

다. 이들은 샴페인 공공도서관(Champaign Public Library), 어바나 공공도서관(Urbana Free Library), 지역의 고등학교, 서점, 도서관, 신문사 및 방송국 등 지역사회의 기관, 단체들과 파트너가 되어 2008년 3월 30일부터 4월 27일까지 한 달 동안 “The Big Read”의 선정도서 가운데 하나인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The Death of Ivan Ilyich)”을 읽으며 행사를 진행하였다.²²⁾

실질적인 주관 부서인 러시아, 동유럽 및 유라시아 센터는 일리노이 대학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에서 열리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후원하고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서, 4월 3일에 지역의 WILL-AM 방송의 “Focus 580”에서 스텡슨 대학(Stetson University)의 러시아학과 교수인 마이클 데너와의 인터뷰를 후원하여, 선정 작품 및 “Champaign-Urbana Big Read”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하였다. 또한 “고전작품 속에서의 톨스토이(Tolstoy among the Classics)”라는 제목으로 지역의 고등학교(Judah Christian High School)에서 열린 강연회도 교수가 진행하였다.

“Champaign-Urbana Big Read 2008”를 위해 4월 한 달 동안에 진행된 주요한 행사로는 샴페인 공공도서관에서 열린 마이클 데너 교수의 기조 강의, 샴페인 센트럴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극 공연, 샴페인 지역의 버지니아 극장에서의 “죽음과 삶의 의미” 영화제, 어바나 공공도서관에서의 독서 클럽 파티와 토론 등을 포함하였다. 그 밖에도 일리노이 주립대학 캠퍼스 내와 지역사회에서의 각종 강연, 패널 토론, 공연 등이 있었다.

한편 읽도록 선정된 책은 지역의 학교들과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교과과정에 통합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8주간 진행되는 학부 소설 강좌에서 이 책에 대하여 강의하였고, 의학대학의 “의학 연구자 프로그램”에서 지역의 의사들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죽음과 임종”에 관한 의학 패널 토론회에서 발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교수가 조직하고 인도하는 샴페인 카운티 교도소의 재소자 토론의 주제가 되기도 하였다.²³⁾

이 같이 대학이 “The Big Read”의 형태로 “한 책” 독서운동을 주관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독서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전문 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대학 도서관이 아닌 학과와 연구센터 등이 독서운동을 주관하면서 “한 책” 및 그 주제와 관련된 특정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보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도 볼 수 있다.

(2) 위스콘신 주립대학-유클레어(University of Wisconsin-Eau Claire)

위스콘신 주의 유클레어에 소재한 위스콘신 주립대학은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The Big Read”의 기금 지원을 받아 “The Eau Claire Big Read”를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위스콘신

22)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Champaign-Urbana Big Read 2008: What is Big Read?* 2008, <<http://www.reec.uiuc.edu/bigread/what/>> [Access 2008. 4. 29].

23) Mitchell, Melissa, *Read Tolstoy, Share Excitement of Literature... and Pass it On*, 2008, 2., News Bureau(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http://www.news.uiuc.edu/news/08/0212bigread.html>> [Access 2008. 5. 2].

주립대학의 서비스-학습센터(Center for Service-Learning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Eau Claire)가 주관하는 것으로서 2007년에는 “Fahrenheit 451”을 읽었고, 2008년에는 “The Maltese Falcon”(Dashiell Hammet)을 읽기로 하였다.²⁴⁾

“The Eau Claire Big Read”도 대학 내 센터가 주관하기는 하지만 모든 행사와 활동은 지역사회의 기관, 단체 및 개인과 파트너로 수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지역의 치피와 밸리 책 축제(Chippewa Valley Book Festival), 위스콘신 대학의 영어축제(English Festival-UW-Eau Claire)와 영문학 우등생 학회(Sigma Tau Delta, English Honors Society-UW-Eau Claire), 치피와 밸리 리터러시 자원봉사단(Literacy Volunteers)과 같은 예술·문학 단체, 서점, 커피숍, 유클레어 시와 소방서 같은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서비스, 위스콘신 공영 라디오(WPR) 등 지역의 신문, 방송 매체, 유클레어 지역 교육구(Eau Claire Area School District) 등이 협력하였다. 물론 지역의 알투나 공공도서관(Altoona Public Library), 필립스 기념 공공도서관(L.E. Phillips Memorial Public Library) 및 대학의 매킨타이어 도서관(McIntyre Library-UW-Eau Claire)도 파트너가 되었고, 위스콘신 주립대학 전체 및 소년소녀 클럽, 필립스 시니어 센터 등과 같은 사회봉사 단체들도 함께 참여하였다.²⁵⁾ 한편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도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2007년에는 NEA에서 \$15,000(1,500만 원 정도)를 지원받고, 지역에서 \$18,000(1,80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받아 두 달 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2008년 4월 5일의 개막 행사 이후 삼 주 동안 열리는 행사들을 보면 대학의 시설 및 공공도서관, 카페, 서점, 중학교 강당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필립스 메모리얼 공공도서관에서 세 차례의 영화 상영 및 페스티벌(느와르 필름 및 험프리 보가트 주연의 영화 상영), 서점과 카페에서의 낭독회인 “Book Slam”, “미스터리 독자” 독서토론, 캠퍼스 토론 등 다섯 차례의 독서 토론회 등이 열렸다.²⁶⁾

“The Eau Claire Big Read 2008”도 대학이 주관하기는 하지만, 앞서의 “Champaign-Urbana Big Read 2008”과는 사뭇 성격이 다르다. “한 책” 독서운동의 전형적인 목표대로 둘 다 독서와 토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Champaign-Urbana Big Read 2008”이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교수 등 전문가를 활용한 학술적 활동을 수행하며 대중으로 하여금 이를 즐길 수 있게 하였던 반면에, “The Eau Claire Big Read 2008”은 카페 낭독회나 영화 상영 등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대중적 행사만을 치렀다. 그러나 개막식에 유클레어 경찰국의 경찰들이 시민을 “에스코트”하여 책에게로 데려다 주고, 무료로 책을 나눠주기도 한 것은 지역의 독서축제로서 보다 친근한 이미지를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²⁷⁾

24) The Eau Claire Big Read. *Announcing The Big Read program in Eau Claire 2008!* 2008, <<http://www.ecbigread.org/index.html>> [Access 2008. 5. 2].

25) The Eau Claire Big Read. *Supporters*, 2008, <<http://www.ecbigread.org/supporters.html>> [Access 2008. 5. 2].

26) The Eau Claire Big Read. *Calendar*, 2008, <<http://www.ecbigread.org/calendar.html>> [Access 2008. 5. 2].

2. 대학 캠퍼스 내의 “한 책” 독서운동

가. “한 책, 한 캠퍼스”로서

(1) 리하이 대학의 “On the Same Page, Lehigh”

펜실베이니아 주 베들레헴에 소재한 리하이 대학(Lehigh University)은 2003년 대학의 린더맨 도서관 125주년을 기념하여 처음으로 “On the Same Page, Lehigh” 독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리하이 공동체(Lehigh Community)”, 즉 학생, 교수, 직원, 동문, 신입생, 후원자 등 리하이 대학과 관련 있는 누구든지 함께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²⁸⁾

“On the Same Page, Lehigh”는 2003년 3월 봄학기에 최초의 “한 책”으로 “City of Light” (Lauren Belfer)를 읽으면서, 작가와의 만남, 캠퍼스 내 독서토론, 주제전문가 및 교수와의 토론 등의 행사를 가진 이후,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진행되었다.²⁹⁾ 한편 2004년 가을학기에는 “신입생 독서 프로그램(First Year Students(Class of '08) Reading Program)”과 연합하여, “Nickel and Dimed : On(Not) Getting by in America”(Barbara Einrich)를 읽었고, 2004년 봄학기에는 “The Dante Club”(Matthew Pearl), 가을학기에는 “Copenhagen”(Michael Frayn)을 각각 읽도록 하였다.³⁰⁾ 2005년 가을학기에 “Color of Water : A Black Man’s Tribute to His White Mother”(James McBride)를 읽은 이후에는 “On the Same Page, Lehigh”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입생을 위해서는 공동독서 프로그램으로서 별도의 “여름독서 프로그램(Summer Reading Program)”을 계속 진행하여, 2007년에는 “Freedom in Exile”(Dalai Lama)을 읽고 토론하도록 하였다.

(2) 인디애나 대학 사우스벤드의 “One Book, One Campus”³¹⁾

인디애나 대학 사우스벤드의 “One Book, One Campus”는 2004년부터 대학도서관(Franklin D. Schurz Library)이 교내의 “American Democracy Project”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한 책” 독서운동이다. “One Book, One Campus”도 학생, 교수 및 교직원들로 하여금 같은 책을 읽고, 토론과 작품에 관련된 캠퍼스 행사에 참여하도록 권하고 있다.

27) The Eau Claire Big Read. 2008 *Events*, 2008, <<http://www.ecbigread.org/Events.html>> [Access 2008. 5. 2].

28) Leigh University, *On the Same Page. About the Program*, 2008, <www.lehigh.edu/samepage/about.html> [Access 2008. 4. 24].

29) Lehigh University, *On the Same Page. Archive. Spring 2003*, 2003, <<http://www.lehigh.edu/samepage/belfer.html>> [Access 2008. 4. 24].

30) Lehigh University, *On the Same Page. Archive. Fall 2004*, 2004, <<http://www.lehigh.edu/samepage/frayn.html>> [Access 2008. 4. 24].

31) Indiana University, South Bend, Franklin D. Schurz Library, *About One Book, One Campus*, 2008, <<http://www.iusb.edu/~libg/onebook/aboutoboc0708.shtml>> [Access 2008. 5. 9].

“One Book, One Campus”의 목표는 “이 대학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비판적 사고와 토론을 장려하는 것”이다. 매년 이 목표에 부합하는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하기 위해서 열여덟 명의 교내 “One Book, One Campus” 위원회가 추천 책을 접수하고, 최종 후보로 다섯 권을 선택한 후 교내 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 책을 고르게 된다. 최종 후보 다섯 권에 들기 위해서는 도전과 영감을 주고, 시중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으며 다수에게 광범하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책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³²⁾

한편 “One Book, One Campus”를 주관하는 대학도서관은 캠퍼스 내의 기관 및 교양교육위원회와 함께 책의 선정 및 주요한 행사의 진행에 관하여 협력하는 체제를 지속하면서, 책과 그에 관련된 활동이 그 해 이 대학에서 추구하는 “캠퍼스 주제(Campus Theme)”와 연결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 대학에서 매년 정하는 “캠퍼스 주제”는 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며, 교양교육 교과과정 및 학위 프로그램에서 정규 교과목과 과외 학습(extracurricular learning)을 연계함으로써 “교양 환경(a liberal arts environment)”을 육성한다는 목적을 갖는다. 그러면서 교내의 다양한 대학, 학과 및 기관들의 후원을 받아 강의, 전시회, 공연 및 기타 행사와 활동 등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³³⁾

그동안 이 대학의 “One Book, One Campus”에서 선정된 책들을 보면, 2008-2009년에 선정된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의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은 올해의 “캠퍼스 주제”인 “사고의 혁명(Revolutions in Thought)”과 부합하는 주제를 담고 있다. 또한 2007-2008년에 선정된 노르웨이 작가 헨리크 입센(Henrik Ibsen)의 “An Enemy of the People”은 “지속가능한 공동체(Sustainable Communities)”라는 “2007-2008 IUSB 캠퍼스 주제”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다.³⁴⁾ 참고로 2006-2007년에는 “The Spirit Catches You and You Fall Down”(Anne Fadiman), 2005-2006년에는 “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Philip Dick), 그리고 2004-2005년에는 “War is a Force That Gives Us Meaning”(Chris Hedges)을 각각 읽었다.

“One Book, One Campus”가 시작된 첫 해인 2004-2005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다.³⁵⁾ 두 차례의 단상강연(Table Talk 주제 : “The American Democracy Project and One Book, One Campus : Ways for Students, Staff, and Faculty to Get Involved”, “Veterans’ Perspectives on Military Service” and “War as a Force.”), UCET Teaching Circle 토론, 학

32) Indiana University, South Bend, Franklin D. Schurz Library. *Why This Book?* 2008. <http://www.iusb.edu/~libg/onebook/whyoboc0708.shtml> [Access 2008. 5. 9].

33) Indiana University, South Bend. *The Campus Theme*, 2008. <http://www.iusb.edu/~sbtheme/index.shtml> [Access 2008. 5. 9].

34) Indiana University, South Bend, Franklin D. Schurz Library. *The Campus Theme*, 2008. <http://www.iusb.edu/~sbtheme/index.shtml> [Access 2008. 5. 9].

35) Indiana University, South Bend, Franklin D. Schurz Library. *One Book, One Campus Events 2004-2005*, 2008. <http://www.iusb.edu/~libg/onebook/oboevents0405.shtml> [Access 2008. 5. 9].

생들이 인도하는 토론, 교내의 서점에서의 토론, 작가와의 만남, 제이차 세계대전에 관한 시 낭송회 등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One Book, One Campus”에서는 교수 혹은 연구자들의 주제 관련 강연 말고는 도서관이 진행하는 행사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대신 앞서 말한 “캠퍼스 주제”가 학교 전체의 교양 교과목과 연계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 책들 또한 수업과 관련하여 읽히고 토론 되는 주제가 되었다.

나. “공동독서 프로그램”으로서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는 “공동독서 프로그램”이라는 “한 책” 독서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북돋고자 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One Campus, One Book”이라는 제목을 갖고 진행되는데, 이 “공동독서 프로그램”의 목표는 대학 캠퍼스 전역에서 강의실에서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와 학습의 경험을 만들어가자는 것으로,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권장하지만, 특별히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8년 4월 Fister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모두 201개 대학이 2006년 혹은 2007년에 “공동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³⁶⁾

한편 Twiton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130여 개의 공동독서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61.2%)가 시작된 지 4년 이하라고 응답하였고, 18.6%가 7년 이상 되었다고 응답하였다.³⁷⁾ 이것을 보아 “공동독서 프로그램”이 대학사회에서 비교적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전부터 대학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권장도서 목록 같은 것을 제공하던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럴 때 대부분 서양의 고전 작품들을 읽도록 권장하였던 것에 비하여, 최근에는 그 같은 목록보다는 한 권의 책, 혹은 한 편의 소설, 영화 혹은 에세이일 수도 있는 “한 가지 읽을거리(a single reading)”로 대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면서 보다 다양한 작품들이 선택되고, 종종 자신의 작품에 관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초대될 수 있는 현존 작가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³⁸⁾

“공동독서 프로그램”은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첫 해의 경험(the first-year experience)”을 개선하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본질은 “같은 책을 읽는 것은 토론의 공동 기반을 만듦으로써 공동체(community)로서 사람들을 가깝게 만든다”는 단순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³⁹⁾ 실제로 이 생각은 지역사회의 “한 책” 독서운동과 다를 바 없고, 이 공동독서에 동반하는

36) Fister, Barbara. *One Book, One College : Common Reading Programs*, 2008. 4.,
 <<http://homepages.gac.edu/~fister/onebook.html>> [Access 2008. 4. 24].

37) Twiton, Andi. *Common Reading Programs in Higher Education*, 2007. 1.,
 <<http://gustavus.edu/academics/library/Pubs/Lindell2007.html>> [Access 2008. 4. 20].

38) University of Colorado at Colorado Springs. *One Campus, One Book*, 2007. 10. 18.,
 <<http://web.uccs.edu/library/Exhibits/onebook.htm>> [Access 2008. 5. 9].

39) Ferguson, Michael. *Creating Common Ground: Common Reading and the First Year of College*, 2006, Peer Review(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 Universities), Vol.8, No.3(Summer)

가장 중요한 활동이 소집단 토론이라는 점도 같다.

“공동독서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통합되어 있고, 실제로 새 학사연도가 시작하기 전 여름 동안이라 직후 9월경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기간 동안에 책을 읽게 함으로써 신입생들로 하여금 대학이라는 공동체로 이행하는 것을 보다 쉽게 해준다. 더욱이, 소집단 토론과 더불어 영화, 공연, 패널 토론, 책의 주제에 관련된 전시회 등을 오리엔테이션의 일부 혹은 일학년 교과과목의 일부로서 진행함으로써 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04년부터 “One Campus, One Book”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Penn State University, Brandywine)은 2008년 “지구 온난화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두 권의 책을 선택하고, 이들 가운데 하나를 교과 목표와 관련지어 연중 읽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본교 기상학과 교수 및 드렉셀 대학 화학과 교수의 초청강연, 환경 관련 영화 상영 등으로 학기말 무렵에 행사를 마무리 하는 예를 볼 수 있다.⁴⁰⁾

Laufgraben은 “공동독서 프로그램”의 주요한 요소는 (1) 프로그램의 계획과 홍보, (2) 행사와 활동의 구상, (3) 책의 선정, (4) 공동독서를 커리큘럼으로 연결, (5) 프로그램의 평가를 포함하며, 성공적인 “공동독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갖는다고 하였다:

- (1) 명확하게 명시된 목표를 갖고, 이 목표에 어울리는 활동을 계획한다;
- (2) 캠퍼스 전체에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 (3) 고립된 노력을 넘어서서 캠퍼스 문화에서 주창하는 바를 지지하도록 행동한다;
- (4)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다;
- (5)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사용한다.⁴¹⁾

한편 이 같은 “공동독서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 활동으로서 대학의 공동체 의식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신입생들에게 귀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잘 계획된 공동독서 프로그램”은 “대학 생활에서 독서의 중요성” 및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토론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다.⁴²⁾ 예를 들어, 일찍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작해 온 대학들 가운데 하나인 미네소타 주의 세인트폴에 소재한 거스타프스 아돌푸스 대학(Gustavus Adolphus College)은 2000년부터 “Reading-in-Common” 프로그램을 수행해 왔는데, 한 해 전에 교수, 직

http://www.aacu.org/peerreview/pr-su06_analysis2.cfm [Access 2008. 4. 20].

40) Penn State Brandywine. *One Campus, One Book: The Past and Future of Global Warming*. 2008. <http://www.brandywine.psu.edu/Information/News/29827.htm> [Access 2008. 5. 9].

41) Laufgraben, Jodi Levine. *Common Reading Programs : Going Beyond the Book. Introduction*. <http://www.sc.edu/fye/publications/monograph/excerpt/44.pdf> [Access 2008. 4. 24].

42) Laufgraben, Jodi Levine. 2006. 재인용: Ferguson, 2006.

원 및 학생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책을 선정하고 여름 동안 신입생들로 하여금 책을 읽게 한다. 오리엔테이션의 일부로 신입생들과 재학생인 “Gustie Greeters”들이 같이 책을 읽고 토론을 벌이며,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 책의 작가를 만나게 한다.⁴³⁾ 이 대학은 2008년 읽을 책으로 “Chinese Lessons : Five Classmates and the Story of the New China”(John Pomfret)을 선정하였고, 9월에는 작가가 대학을 방문하기로 정해 놓고 있다. 다음에서는 “공동독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대학들 가운데 임의로 선정한 몇 개 대학의 사례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1) 윌밍턴 소재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University of North Carolina, Wilmington)의 “Synergy, the UNCW Common Reading Experience”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윌밍턴 소재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University of North Carolina, Wilmington)은 2007년 “Synergy, the UNCW Common Reading Experienc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읽을 책으로 “연을 쫓는 아이(The Kite Runner)”(Khaled Hosseini)를,⁴⁴⁾ 2008년 가을에 읽을 책으로는 “Never Let Me Go”(Kazuo Ishiguro)를 각각 선정하였다.⁴⁵⁾

이 대학의 “Synergy” 프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한 책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동료 학생들 및 교수들과 공통의 경험을 갖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같은 공동독서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이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 학문적 기대와 지적 참여를 받아들임(혹은 강화함)
- 동료, 교수 및 직원들과 공통의 경험
- 자아반성과 비판적 사고의 기회
- 의미 있고 강력하며 재미있는 학습의 경험⁴⁶⁾

“Synergy” 프로그램을 위해 책을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고 열정적인 토론을 촉발할 잠재성
- 광범한 학생층을 끌어당김
- 강의실에서의 이용, 특히 신입생 세미나와 영어 교과목에서의 이용 및 기타 프로그래밍의 가

43) Twiton, Andi. *Common Reading Programs in Higher Education*, 2007. 1..

〈<http://gustavus.edu/academics/library/Pubs/Lindell2007.html>〉 [Access 2008. 4. 20].

44)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Wilmington. *News and Events: Common Reading Program brings Afghanistan to UNC Wilmington Students Through The Kite Runner*. 2007. 8. 20..

〈<http://appserv02.uncw.edu/news/artview.aspx?ID=2179>〉 [Access 2008. 4. 23].

45)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Wilmington. *Common Reading Announcing...*, 2008.

〈<http://www.uncw.edu/commonreading/>〉 [Access 2008. 4. 23].

46)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Wilmington. *News and Events: Common Reading Program brings Afghanistan to UNC Wilmington Students Through The Kite Runner*. 2007. 8. 20..

〈<http://appserv02.uncw.edu/news/artview.aspx?ID=2179>〉 [Access 2008. 4. 23].

능성

- 주제의 풍부함: 다학문적 접근 가능성
- 학생 생활과의 관련성(성장, 다양성, 관계, 가족, 자아발견, 정체성 등)
- 페이퍼백 구입 가능성
- 400페이지 이하⁴⁷⁾

이 같은 기준으로 선정한 책을 읽게 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가능한 가장 강력한 학습기회를 창출한다”고 하는 대학이 지향하는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의 첫 번째 목표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수, 연구와 봉사, 지적 호기심의 자극, 상상력, 비판적 사고 및 신중한 표현의 통합”이라고 하는 대학의 사명을 지지한다고 하였다.⁴⁸⁾

모든 학생, 교수 및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장되지만, 특히 신입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책을 배부하여 여름 동안 읽어오도록 한다. 신입생들은 대학에서 진행되는 6월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면 직접 책을 받게 되고, 8월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경우 7월 중순까지 우편으로 각각 책을 받게 된다.⁴⁹⁾ 가을에 새 학기가 시작되면, 이 책은 신입생 세미나 및 교수들이 선택한 다양한 교과과정에서 사용된다. 물론 가을 학기 동안에 강연회, 토론집단, 영화 및 공연 등이 책 및 책의 주제와 관련된 행사들이 열리게 된다.

(2)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노쓰리지(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의 “One Campus, One Book”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노쓰리지의 “One Campus, One Book” 역시 매년 “신입생 공동독서 프로그램(Freshmen Common Reading Program)”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입생들은 24명으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⁵⁰⁾가 고른 한 권의 책을 읽고 캠퍼스 전체의 독자 커뮤니티에서 책에 관하여 이야기 하도록 초대받는다.

“One Campus, One Book”에서 책을 선정하는 기준은 “잘 쓰였고, 학문분야를 통틀어서 폭넓게 매력을 줄 수 있고, 신입생들을 캠퍼스 공동체의 일부로서 한데 모을 수 있으며, 학습을 위한

47)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Wilmington. *UNCW Common Reading Program : Selection Criteria*, 2008, <<http://www.uncw.edu/commonreading/aboutprogram-selection.htm>> [Access 2008. 4. 23].

48)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Wilmington. *UNCW Common Reading Program: About Program*, 2008, <<http://www.uncw.edu/commonreading/aboutprogram.htm>> [Access 2008. 4. 23].

49)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Wilmington. *UNCW Common Reading Program: How to Get the Book*, 2008, <<http://www.uncw.edu/commonreading/aboutbook-howto.htm>> [Access 2008. 4. 23].

50)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Selection Committee Members, CSUN's 2008-2009 Freshman Common Reading Program*, 2008. 4. 8., <http://www.csun.edu/afye/Selection_Committee_2008.html> [Access 2008. 4. 23].

특별한 장소로서 이 학교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훌륭한 책”을 선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선정위원회는 2007-2008년 프로그램에는 “The Things They Carried”를, 2008-2009년 프로그램에는 “Nickel and Dimed”를 읽기로 결정하였다. 선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질문들을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 이 책이 신입생들의 마음을 끌고, 독서와 깊은 생각으로 이끌 수 있는가?
- 이 책이 신입생들로 하여금 지적으로 성장하게 장려하는가?
- 이 책이 다양한 교과과정과 상황에서 사고와 토론을 장려하는가?
- 이 책이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존중하고, 현대의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는가?⁵¹⁾

“One Campus, One Book”에서 읽는 책은 새 학사연도가 시작되는 가을 학기에 하나 이상의 수업에서 과제로 부과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대학의 신입생 여름 오리엔테이션의 일부인 친교행사에 중요한 학술적인 보조 자료가 된다. 이 책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신입생들은 자신이 합류하게 되는 대학이라는 “공동체”의 중심부에 “학문적 참여, 즉 교육과 학습”을 두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대학은 이러한 “신입생 공동 프로그램”에서 읽는 책이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의 강의실을 넘어서서, 그 밖으로 나아가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하며 배울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⁵²⁾

이처럼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다른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교수, 직원, 학교 당국, 심지어는 가족과도 함께 얘기함으로써는 “학술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같은 대학의 “공동독서 프로그램”들이 지향하는 바이다.

Ⅲ. 대학의 “한 책” 독서운동의 특성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대학들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한 책” 독서운동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대학들이 지역사회의 “한 책” 독서운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파트너 혹은 주관자의 역할을 하였고, 대학 캠퍼스 내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전형적인 “한 책” 독서운동의 형태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독서 프로그램”의 형태로 주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대학들이 지역사회의 “한 책” 독서운동에 파트너 혹은 주관자로서 참여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51)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One Campus, One Book: Selection Criteria for CSUN's Freshman Common Reading Program*, 2008, 4. 8., <<http://www.csun.edu/afye/Criteria.html>> [Access 2008, 4. 23].

52)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One Campus, One Book*, 2008, <<http://www.csun.edu/afye/CommonRead.html>> [Access 2008, 4. 23].

첫째, 대학은 자체가 보유한 도서관 장서와 같은 정보자원, 다양한 전공 분야의 교수, 교직원 혹은 연구자와 같은 전문적 인력자원 및 캠퍼스의 시설 등의 다양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 책”으로 선정된 작품에 관련하여 공공도서관 등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단체가 비교적 대중적이며 일반적인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대학은 보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측면의 행사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한 책” 독서운동의 운영주체나 선도기관 이외의 지역사회 개인, 기관, 단체 등의 파트너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협조하는가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규모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⁵³⁾ 대학이라는 지적, 문화적, 학술적 공동체는 “여러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한 책” 독서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론지침서를 만들 때 필요한 텍스트 분석과 비평, 토론질문, 참고문헌 등에 대한 폭넓은 조사와 연구 등에 대학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대학은 시설과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지원함으로써 대중에게 보다 가까이 갈 수 있어, 그 자체가 대학의 “아웃리치” 활동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실제로 웨스턴 켄터키 대학 도서관의 웹사이트는 이 대학이 수행하는 “One Book” 프로그램을 “Community Outreach”로 소개하고 있고, 앞에서 언급한 몇 대학들은 그 같은 이름을 직접 붙이지는 않았으나 “한 책” 독서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례를 보여준다. 암스트롱 아틀란틱 대학이 처음 시작한 “Campus Read”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Savannah Reads”로 확대시킨 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한 책” 독서운동에는 대학도서관만이 아니라 다양한 대학 내 학과, 연구소, 부서, 부속기관 등이 참여하면서 각각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독서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표 2>에서 노스캐롤라이나-채플힐 캠퍼스(UNC Chapel Hill)의 경우, 대학 내에서 흑인문화와 역사 연구소(The Sonja Haynes Stone Center for Black Culture & History)가 “The Big Read”를 주관하며 흑인 작가의 작품을 읽는다거나,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러시아, 동유럽 및 유라시아 센터가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으면서 2007년 시작된 러시아의 “Big Read Russia”에도 참여하는 등 기관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비교적 보편적인 주제를 갖고 진행되었던 “한 책” 독서운동의 모형이 보다 전문적인 주제 영역 활동으로 심화되고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넷째, 대학이 “The Big Read”에 참여함으로써 특히 “문학 독서(literary reading)”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다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The Big Read”는 미리 선정된 미국문학의 고전작품을 읽고 토론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토론지침과 질문, 참고정보원, 행사의 진행, 홍보와 마케팅에 필요한 도구와 자료들까지도 제공한다. 대학이 “The Big Read”에서 권장하는 작품

53)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행단계별 특성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07), pp.5-32.

들 가운데 하나를 골라 읽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쩌면 그 대학 공동체 안팎에 그 책 자체가 가진 “문학 고전(literary classic)”으로서의 가치를 동의하고 인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국에서 동시에 같은 책을 읽는 수많은 지역사회들과 공감대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대학 캠퍼스 내에서 전형적인 “한 책” 독서운동 혹은 “공동독서 프로그램”의 형태로 진행될 때도 역시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두 가지 모두 대학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한 책”을 읽고 토론하게 하며,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전자는 대체로 대학도서관이 대학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보다 순수한 의미의 독서를 진흥하고, 토론을 권장하기 위해서 수행된다고 한다면, 후자는 대학 당국이 주로 신입생들로 하여금 “한 책”을 통해 대학에 적응하게 하고 교과과정과 연계된 독서와 토론을 권장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물론 이 연구에서 살펴본 몇 대학의 사례만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두 가지 유형의 “한 책” 독서활동이 서로 중첩되는 목표나 활동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캠퍼스 내의 “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점은 지역사회의 “한 책” 독서운동과 마찬가지로이다.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관심을 갖는 대학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같은 책을 읽는다는 “문화적 체험”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책에 관해 더 배울 수 있다. 또한 앞의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종 대학 자체의 전략적 목표, 혹은 “캠퍼스 주제”와 같은 공동체의 관심 사항에 공감하고 참여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셋째, “한 책”이 어떤 형태로든 교과과정과 연계될 때, 학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연구에서 대학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현황만을 서술하였으므로, 실제로 각 대학이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직접 알기 어렵다. 또한 아직은 그 효과에 대하여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는 가운데 “한 책” 독서운동의 긍정적 영향을 보여주는 대학의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One Book/One Campus”라는 제목의 캠퍼스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벤츄라 대학(Ventura College)이 그렇다. 이 대학에서 조사한 결과, 46% 이상의 학생들이 “One Book”의 경험이 수업에서 자신들이 학습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이차연도에는 “이처럼 복합적이며 다양한 방식의 학습 경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당시 선정된 책의 주제였던 월남전 시대를 보다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강의에서 보다 개선된 학습 성과를 인식하고 있었다.⁵⁴⁾ 그밖에도 “공동독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대학들이 지난 사오년 사이에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한 시작한 대학들은 꾸준히 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단순한 유행이 아

54) Ventura College. *Longitudinal Student Achievement Data and Overview of Assessing Student Learning Outcomes*, 2004.
 <http://www.venturacollege.edu/college_information/about/accreditation/2004/longitudinal.shtml>
 [Access 2008. 4. 23].

나라, “한 책”을 읽고 토론하기의 효과를 인정하는 상징적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이 연구는 “한 책” 독서운동이 많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공동체 활동으로 자리 잡은 미국대학을 중심으로 현황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처럼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 본 경우에는 항상, 연구에서 발견한 내용을 상이한 환경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까 하는 문제를 생각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테면, 미국의 대학들처럼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한 책” 독서운동의 모형을 채택하여 독서진흥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까? 혹은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어떤 형태로든 지역사회의 “한 책” 독서운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 답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그렇게 밝은 전망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첫째, 우선,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과연 “한 책” 독서운동이란 것의 존재, 의미 혹은 필요성 같은 것을 알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의 “한 책” 독서운동은 아직은 그렇게 많이 확산되었다고 할 수 없다. 2003년 충남 서산시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후, 순천, 익산, 부산, 원주 및 청주 등지에서 매년 진행되고 있고, 서울에서는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대학이 지역사회의 “한 책” 독서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부산광역시의 “원북 원부산”을 위해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가 큰 역할을 하였고, 55) 청주의 “책 읽는 청주”에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가 적극 돕고 있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도서관과 관련 있는 문헌정보학과 학생과 교수들만이 개입하는 형태이고, 그 밖의 대학 구성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한 책” 독서운동이란 것이 공공도서관과 독서진흥에 관심이 있는 소수에게만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대학들의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둘째, 우리나라 대학들이 미국의 대학들이 그러는 것처럼 자신들의 캠퍼스가 소재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책임감 혹은 소속감을 갖고 있는지, 또한 그 때문에 지역사회가 수행하는 독서운동과 같은 것을 위해 자신들이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기여하고 싶어 하는지도 알 수 없다. 사실 상 이 연구에서 사례로 든 여덟 개 대학 가운데 사립인 리하이 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크고 작은 주립대학들이다. 전적으로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대학들이 지역사회에 갖는 소속감이나 책임감 같은 것이 어찌면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인식하는 것과는 다를 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학이 먼저 우리 지역사회에서 “한 책” 독서운동과 같은 것을 해보자고 앞장서거나, 적극

55) 원북원부산운동 추진위원회. 부산광역시 교육청. 2005.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부산, 사람 풍경, 부산 풍경.” 2005년도 원북 원부산 보고서.

적으로 도서관의 장서나 공간을 개방하고, 교수들이 주제 관련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는 등으로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대학들이 캠퍼스 내에서 “한 책” 독서운동과 같은 것을 수행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독서율을 높이고, 독서와 토론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교내에서 지속적인 독서운동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한 책” 독서운동의 모형을 따르는 것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한 책” 독서운동을 통해 대학 공동체의 구성원이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대학 내에서 한번 해 볼만 한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미국 대학에서 신입생을 위한 “공동독서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 점차 확산되고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지속되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대학들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에서 흔하게 눈에 띄는 “연예인의 공연 및 명사들의 성공사례 발표”와 더불어 “한 책 읽고 토론하기”를 끼워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 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봄으로써, 그리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개인이 변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도 변화할 수 있음⁵⁶⁾을 인정한다면, 대학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한 책” 독서운동이 할 수 있는, 혹은 해야 하는 역할이 있을 수도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56) 이권우,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의 성과와 과제,” 도서관문화, 제45권, 제6호(2004).

